

## 고유가 폭탄 맞고 새만금에 치이고 무안 국제공항 시계 '제로'

### 정부 군산 국제공항 추진 땀 치명타

고유가로 인해 국제선 편수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 국제공항이 정부의 군산 국제공항 건설 방침이라는 복병까지 만나면서 호남권 거점공항으로서의 활성화는 물론 위상 저하마저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개항 10개월을 맞은 무안 국제공항은 광주~무안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조기안착의 계기를 맞았으나 최근 고유가폭등에 따른 항공사들의 잇따른 국제선 감축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여기다 정부가 군산 국제공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호남권에 2개의 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 양 공항 모두 공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지난 4일 발표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에 따르면 기존 군산공항을 확대해 국제공항으로 신설하도록 돼 있다.

군산공항의 국제공항 확장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새만금 관광도로에 맞춰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해 이번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의 활성화에 대비, 군산 국제공항의 2009년 착공을 목표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반면 무안 국제공항은 유가 고공행진이 장기화되면서 정기 국제선이 잇따라 감축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무안공항은 지난 해 11월 9일 호남권 거점공항을 표방하며 문을 연 이후, 올 5월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으로 국제선 정기선 13편을 확보하는 등 단기간에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그러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6월부터 무안 국제공항의 정기 국제선이 잇따라 줄어들어, 9월 현재 6편만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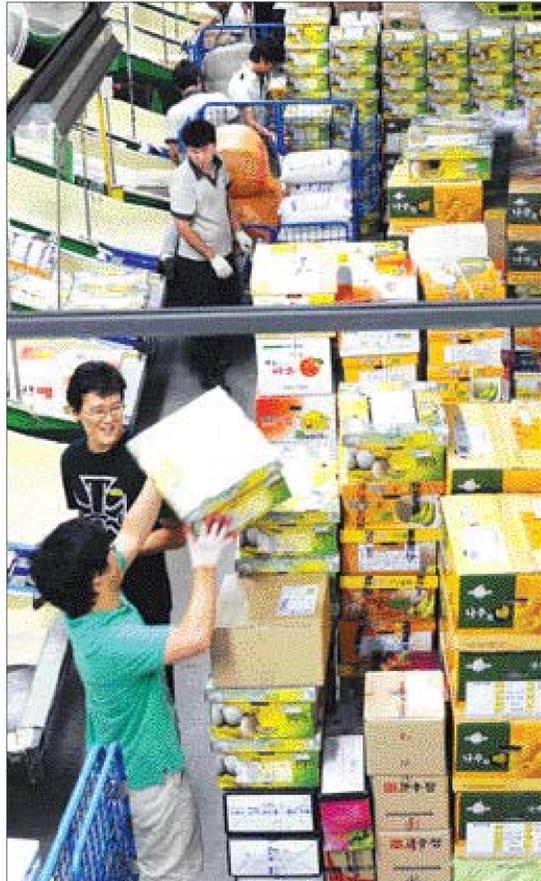
더욱이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개통(5월 28일) 이후 군산이나 익산 등 전북지역과 무안 국제공항과의 접근성(1시간)이 높아져 탑승객 수가 대

폭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군산 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이용객 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행업계측은 "무안공항을 통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를 여행하는 승객의 20~30%가 전북지역임을 감안할 때 무안공항의 국제선 노선은 타격이 불가피하고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국가 차원의 공항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호남권에 2개의 국제공항이 존재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면서 "만약 군산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항공시장 구조상 무안과 군산공항 모두 치명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코스피 폭등 환율은 급락

### 금융시장 안정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

8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가 급등과 수출업체 매도세 영향으로 1,081.4원에 마감됐다.

이는 전 거래일보다 36.4원 폭락한 것으로, 1998년 4월 7일(38.00원)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주식시장도 회복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72.27포인트(5.15%) 급등한 1,476.65로 마감됐다. 또 이날 오후에는 올레 두 번째로 '사이드카'가 발동돼 지나친 폭등을 막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17.47포인트(3.95%) 급등한 459.42에 마감됐다. 3.95%의 상승률은 지난 2월 4일 4.21%(25.81포인트)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금융시장 안정세는 채권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날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주 말보다 0.04%포인트 떨어진 5.84%로 마감, 나흘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5.76%로 0.04%포인트 내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밀려드는 한가위 情** 추석은 6일 넘겨둔 8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광주우편집중국에는 한가위 정을 나누려는 선물로 넘쳐났다. 이날 하루 광주·전남지역에서만 14만여개의 택배물량이 밀려들면서 직원들의 손놀림도 분주해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세계화 시급

### 문화·예술 교육으로 시민들 현대미술 안목 높여야

07  
08

#### 본사 주최 세계 미술 거장 특별 좌담회

광주 비엔날레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미술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역성을 뛰어넘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14·16면〉

또한 광주비엔날레가 실험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끌어 안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교육을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시민들의 안목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5일 광주일보 주최로 열린 광주비엔날레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크리스찬 라템마이어(Christian Rattemeyer) 뉴욕현대미술관(MoMA) 큐레이터, 케이 소피(Cay Sophie) 전 스위스 바젤 아트 페어 디렉터, 아키라 다테하타(Akira Tatehata) 일본 국립오사카 미술관장, 다나카 산조(Danaka Sanzo) 아사히 신문 문화부 기자는 광주비엔날레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서 라템마이어 큐

레이터는 “광주비엔날레가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흐름을 수용하는 세계화가 시급하다”면서 “외국인 출신의 오키노 에이지를 예술감독으로 영입한 것은 이같은 세계화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아키라 다테하타 미술관장은 “아시아 최초의 비엔날레인 도쿄비엔날레가 폐지(1988년)된 것은 너무 실험적인 컨셉트를 고수한 나머지, 관람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며 “(광주비엔날레가) 이같은 선례를 교훈 삼아 광주만의 포맷(형식)을 유지하되 관객들과의

소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케이 소피 큐레이터는 “광주는 창설 13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며 “비엔날레 재단과 일선 학교들은 광주시민들이 다양한 현대미술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전남에 초대형 해양 풍력발전단지

### 2조5천억 투입... 600MW 규모 단지 5곳 조성

여수와 고흥, 영광 등 전남 서남해안 바다 한 가운데에 초대형 해양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내에서는 육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적은 있었지만 해상에 풍력발전단지를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단일단지 규모로도 세계 최대다.

전남도는 8일 박준영 지사와 한수원 사장, 박우량 신안군수, 박병중 고흥군수, 정기호 영광군수, 김중식 완도군수 등 도내 5곳의 자치단체장이 참

석한 가운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위한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해상 풍력발전은 거대한 프로펠러 모양의 발전기를 해상에 세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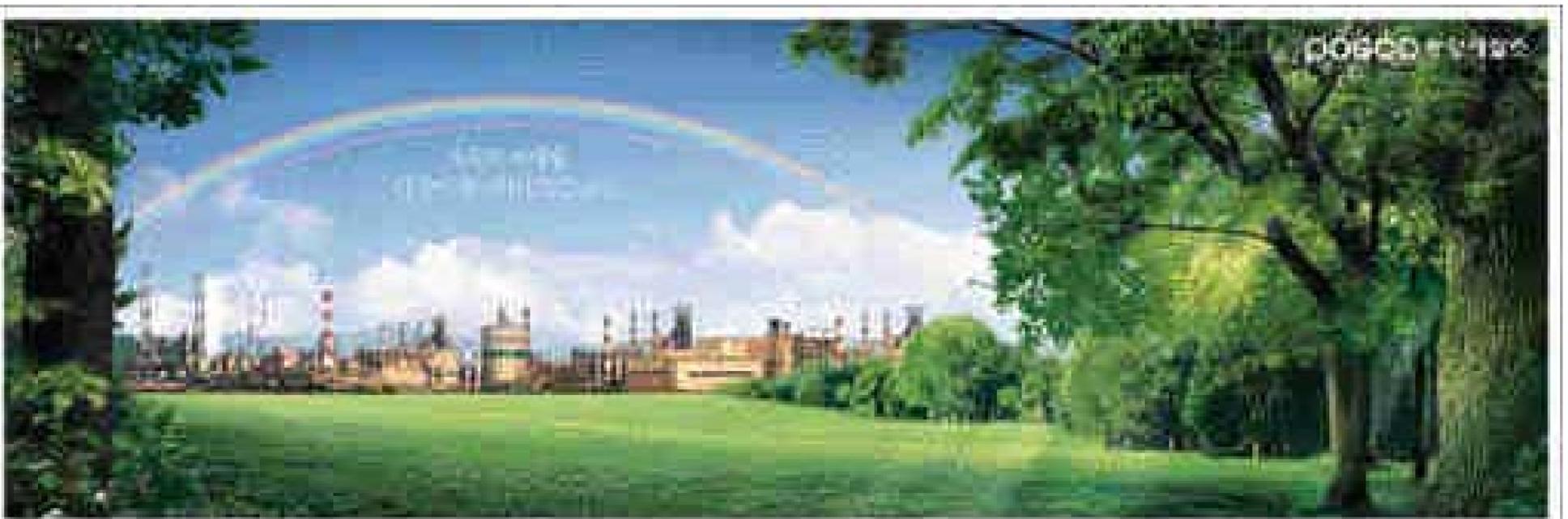
㈜포스코건설은 협약에 따라 풍속이 우수한 전남도내 섬지역 인근 해역에 2015년까지 2조5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발전용량 60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600MW는 20만 가구가 동시에

1시간 가량을 사용할 수 있는 발전용량이다.

대상 지역은 여수시 여자만(200MW)과 고흥군 득량도 인근 해역(100MW), 영광군 백수읍 해역(100MW), 완도군 어룡도 해역(100MW), 신안군 임자도 해역(100MW) 등이다.

현재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발전소는 2003년 덴마크 해상에 설치된 것으로 설치용량은 165MW이며 2.3MW 용량의 발전기 72기가 운영 중인데 여자만에 계획중인 발전단지의 설치 용량보다 작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홍행기 기자

광주광역시... (Small text block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and publication details)